

“벼랑 끝 소상공인 돕는다” 광주 복구 코로나 정책 호응

세금감면·납부 유예·공직자 선결제 챌린지·상생장터 전개 ‘자영업지원센터’ 개소 “지속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중점” 문인 청장 ‘2021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 광주 유일 선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복구의 디테일한 자영업자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백신접종을 증가 등으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면서 모임 인원 제한 완화, 식당 등 영업시간 완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다시금 지난 6일 사적인원 모임 인원제한(8명), 식당·학원·카페·PC방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얼굴이 그늘이 지워지고 있다.

7일 복구에 따르면 복구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총 2만 6964곳(광주시 전체 소상공인의 28.6%)이며, 이곳의 종사자는 총 5만 3379명에 달한다. 이는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있어 광주 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대면 업종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복구는 지난해 10월 한달간 관내 소상공인 2280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맞

춤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구의 경기집체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진행 중이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조속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문인 복구청장은 직접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상점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논의해 직접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세금감면 및 납부 유예를 1순위 지원정책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점을 정책에 반영해 3無(대출무담보, 무이자·무보증 수수료) 및 4無(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보증 대출 등으로 246곳에 43.5억원을 지원하고, 이차차액으로 5400만원을 보전해 줬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지역밀착형 지원과 온라인

·비대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문정장의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200업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또 34곳의 업체는 시설 개선 보조사업자로 지정돼 보조금이 지원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때부터 민생경제활성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한편, 공직자 착한 선결제 챌린지, 상생장터,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7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가능한 자영업 환경 조성 ▲포용적 금융서비스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한번의 지원이 아닌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임차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 골목형상점가 지정,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등 골목상권 활성화도 빼놓지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더불어 코로나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민선 7기 제1호 공약사항으로 1300여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관내 산업단지(본촌일반산단 및 점단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산업현장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 건의사항 수렴해 노후기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광주시 복구는 최근 복구청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상생장터’를 열었다. (광주시 복구 제공)

반 기반시설 정비와 하고, 지난 3월에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한 110면의 공영주차장을 개소해 기업민원을 해결했다.

4차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해 신산업업종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와 기업체 88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는 복구가 ‘기업체감도 분야’ 광주전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 등을 인정받아 문인 청장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제18기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주관하는 ‘2021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 최종 투표에서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문인 복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역~조선대 앞 ‘도심건강 3길’ 걸어요

광주 동구, ‘키보드 금지’ 등 보행자 안전 표지판 정비

광주역에서 조선대 앞까지 이어진 도심 속 산책길인 ‘도심건강 3길’이 정비됐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1월 지정된 도심 속 산책길인 ‘도심건강길’ (7곳) 중 3길의 일부구간을 지난 달 변경하고 노후 표지판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변경된 구간은 기존 시작점이었던 이마트(동광주점)가 폐점하고 광주역(시작점)까지 푸른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등 변화된 주변 환경과 주민 이용도를 반영해 기존 ‘이마트’ 지점에서 ‘광주역’으로 0.4km 연장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전동킴보도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건강 3길의 보행 표지판 22곳에 ‘전동킴보도 금지’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동구 ‘도심건강길’은 ▲(1길)단사공원→조대부고 ▲(2길)보현사→동작골 체육센터 ▲(3길)광주역→조대앞 ▲(4길)선교→너릿재 정상 ▲(5길)원지교→증심사 입구 ▲(6길)용산체육공원→진아리체1차 ▲(7길)광주일교→용산체육공원 구간 등 총 19.4km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송암동, 전국 첫 ‘에너지 자급자족’ 도전

‘마을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3년간 27억 들여 실증 나서

광주 남구가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해 송암동 신흥천 마을에 전국 최초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융복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력체계인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구는 7일 ‘산업동상자원부 주관 마을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기술개발’ 공모에서 광주 지역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소규모 자가발전 전력 시스템 구축 및 실증에 나

선다”고 밝혔다.

마을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기술개발은 에너지 산업분야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대형 스마트 홈 서비스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한 곳의 대형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단위에서 소규모 자가발전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토록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화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으로 신흥천 마을을 지정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통해 이곳 마을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을 100% 완료했고,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기반 설비에 대한 검증이 용이해진다.

남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마을인 신흥천 마을에 에너지 소비 대체율 50%와 발전량 20%, 운영 유지효율 10%, 설비수명 10% 증대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자립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 메타버스 활용 ‘학습오름공동체 경진대회’ 개최

광주대학교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2021년 2학기 학습오름공동체 활동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7일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호심기념도서관 5층 학습법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공동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해 생중계했다.

‘학습오름공동체’는 효율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스터디그룹을 구성,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창의·전공·생활관 학습오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총 44팀 130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최우수 패선주얼리학과 S&F팀을 비롯해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액티브상 3팀이 시상됐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특수교육학생들 끼 발산...광주교육청 ‘문화예술제’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7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함께한 ‘2021 꿈꾸는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내 꿈에 온(ON)타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문화예술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학생들의 중창 공연을 시작으로 드럼 연주,

판소리 공연, 가락악기 합주, 피아노 듀엣 연주, 수어 및 댄스 공연, 관현악 연주, 타악기 합주, 합창 등 9개 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외에도 실시간 퀴즈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됐으며,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학급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들은 실

시간 줌(Zoom)을 통해 소통했다. 시상식에서는 응원상 3팀, 인터뷰상 3팀이 선정돼 각각 상을 받았다. 또 유튜브 첫 댓글의 주인공 1명과 의미 있는 댓글을 단 3명도 댓글상을 받았다.

신미숙 광주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문화예술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호응 속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더 노력해 멋지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3	
	총 계	23	6	
		93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